이론 믿음, 실제 믿음, 실제 느낌

(고린도전서 3:4~9)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론 믿음, 실제 믿음, 실제 느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론 믿음, 실제 믿음, 실제 느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파가 일어난 현상을 지적합니다.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인격의 핵심인 마음은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욕구하는 소망 작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 분쟁과 분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 말하기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사역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믿음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

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는 믿음을 갖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사역자들을 붙잡는 바람에 믿음이 없어졌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사역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역자들을 붙잡게 되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역자들을 붙잡았기에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에 대해 가려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차 반복해서 기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눈과 귀에 대해 가려져 계신 이유는 믿음을 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려진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이 눈앞에 드러나셨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져 계시지만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져 계시지만 유일한 있음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심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사실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접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일정한 과정을 따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술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숙하는 과정에 있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분파를 계기로 삼아 믿음의 성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숙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믿음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이론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론, 즉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이론 믿음도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론 믿음은 다음 단계인 실제 믿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실제 느낌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아닌 실제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은 유치한 상태에서 유지됩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과 분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하며 사역을 하였

습니다. 믿음이 이론 믿음에서 실제 믿음으로 전환되어서 천국과 하나님을 실제 느끼고 발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처음에 받아들였던 이론 믿음조차도 소멸해버리는 상태의 증거가 분쟁과 분파였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늘에 떠있는 보름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보름달은 보지 않고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 가려져 있는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가려져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대신에 보이고 들리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 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스타 목사님들은 자기의 인격 전부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삼아서 하늘을 가리키는 대신에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삼아 자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종교인들은 매일 목사 타령을 합니다. 어느 목사가 좋고, 어느 목사가 나쁘고, 어느 목사에게 실망했고, 어느 목사를 떠나고, 어느 목사에게 붙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를 만나 존경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가는 것보다 이 땅에 머물면서 스타 목사를 추종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스타 목사를 추종하면 마치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까지 보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분해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심겨진 것일까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나에게서 사도 바울의 심기와 아볼로의 물주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모두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밭에 씨를 심을 때

에 씨는 바깥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3차원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이러한 3차원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던 사람의 마음속에 4차원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가르쳐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인식합니다. 요새는 TV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보고 듣습니다. 다만 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TV나 인터넷을 포함하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4차원 세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격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4차원 세계가 심겨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천국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조물주이시며 하나님만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좋음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심겼다는 증거가 이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평강보다는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보잘것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마음의 채움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에서 부인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들어와 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4차원 세계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관계할 수 있어야만 4차원의 사실이 심겨진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4차원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이 심겼더라도 무관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차원은 4차원대로 존재하고 나는 나대로 3차원에서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기의 다음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3차원에 있는 자가 4차원의 세계와 관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통하여 3차원에 있는 내가 4차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면 믿음이 심겨진 이론 믿음의 상태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한다고 해서 이론 믿음이 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은 가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승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통하여 가려져 있는 하

나님과 천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4차원이 사실이라는 씨앗을 심으려고 해서 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리더라도 옥토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지만 그것이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7절에서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씨앗은 심겨야 물을 먹고 자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볼로 또한 물을 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물을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씨가 심기고 물을 먹어서 자라나 성숙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은 3차원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에 대해서만 마음이 반응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4차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차원이 믿어지게 되었다면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이어서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4차원 세계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프리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인도나 아프리카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무관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 처남의 딸이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는데 아프리카로 1년 동안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처남을 만날 때마다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남과 저에게는 아프리카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볼로의 물주기가 이와 같습니다. 물주기는 이렇게 사실로서의 천국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볼로는 4차원의 천국과 영이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잊지 않게 해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과 의식이 4차원에 대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게끔 해주었던 것입니다. 4차원에 친숙해진다는 것은 곧 3차원에 대해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에서 3차원 세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차원 세계에 대해 살아납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이야기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역자가 아니면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대해 친숙해지기 어렵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4차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자는 4차원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현실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볼로의 물주기의 의미입니다.
심기와 물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기는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4차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물주기는 4차원의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심기가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나가야 될 목표를 제시하는 일이라면, 물주기는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목표를 향한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일이며 설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설교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 대한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기를 했다고 해서 물주기와 무관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 그리고 천국이 사실임을 가르쳐주었고 하나님과 천국과 관계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심기가 이루어지고 1년 6개월 동안 물주기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4차원을 향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주기의 사역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볼로를 존중하였고 사람들에게도 아볼로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 심기와 물주기를 분리하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의 교통 속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해석을 찾아냈습니다. 한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볼로는 서신 한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에 대해 단편적인 것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28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의 지혜”를 지적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분쟁과 분파는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사건으로 전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전하게 되면 십자가의 사건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만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1장 23절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의 지혜”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설득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했던 일의 핵심은 말로 유대인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볼로가 물을 주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과 분파가 생깁니다. 이러한 측면을 보자면 아볼로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분파가 생겨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볼로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볼로가 나를 따르라고 말하며 분쟁과 분파를 조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유대인을 이겼듯이 아볼로의 사역의 형태가 언변 중심이었음은 성경의 기록대로입니다. 요새 기독교 종교인들이 말을 잘하는 스타 목사님들을 추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의 아니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 자신은 하늘에 대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말과 설득력에 의존된 사역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쟁과 분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볼로에 대해 분쟁과 분파를 만들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보입니다. 아볼로를 동등한 사역자로 존중하였고 사람들 앞에 세워주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깎아내렸다면 또 분쟁과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볼로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동등한 사역자라 여겨질 수 있는 정도의 사역의 내용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볼로의 능력이나 사역의 상태가 아닌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했어야만 했던 물주기란 바로 하늘에 대한 방향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느낌은 3차원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에 대한 방향성은 잊어버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말은 3차원 세계에 마음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천국을 향해야만 합니다. 이 방향성을 놓치면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라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도 자라지 못했다

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심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물주기의 방향성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한 방향성의 유지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절대 필요조건입니다. 땅을 향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4차원 천국과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믿어진다면 이론 믿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론 믿음이 실제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는 있음을 느끼는 의식 작용과 좋음을 욕구하는 소망 작용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유일하게 여겨진다면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의 체질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대해 살아나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론 믿음은 실제 믿음이 됩니다. 실제 믿음은 마음의 의식 작용이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있음이고 좋음이라는 이론이 실제가 되려면 마음의 있음과 좋음이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서 실제 믿음을 가져야 하늘에 대한 방향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향성이 유지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세계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식과 마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3차원 세계에서만 있음과 좋음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있는 분이심을 느끼고 유일하게 좋은 분이시기에 소망하고 싶다는 이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깃불이 켜지듯이 믿음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전깃불이 계속 켜져 있듯이 믿음 또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좋음을 믿는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이론 믿음은 실제 믿음이 됩니다. 당장

돈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돈 문제에 대해 죽자 하나님의 있음이 우선시 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마음에서 하나님 갖는 것을 더 좋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3차원에 찌들어 살다가 4차원 세계에 살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껐다 켰다 반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방향성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3차원에 찌들어 살던 상태에서 4차원의 세계를 살기 위해 믿음을 켰다가 다시 3차원의 세계가 눈에 보이고 귀에 강하게 들려오면 믿음이 꺼집니다. 이러한 상태는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켜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천국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러한 믿음의 성숙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4차원의 천국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어서 이론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심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4차원의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돕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실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자는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이야기를 날마다 해도 그 말의 옳음을 인정할 할 뿐이지 실제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켜지 않으니 이론 믿음은 철두철미하지만 실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라지 않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이 켜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실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느낌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론 믿음에서 십자가를 통한 실제 믿음으로 그리고 실제 믿음이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4차원은 실제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느낌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 믿음에서 실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4차원이 실제 느낌이 되는 황홀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성숙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실제 느낌이라는 말만 해도 마음이 웃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의 성숙과정을 빠짐없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